대만 유기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센터 개소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은 곧 유기 농업 성장의 동력이다. 최근 대만에서 음식의 개념은 단순 배부른 것에서 건강하게 먹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이며, 유기농 식품에 대한 수요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대만은 면적은 작고 인구는 많아 일반 방식의 농업에서 유기 농업으로의 전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지식인, 정부 등 관련 기관의 협력으로 농업 종사자와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가 필요하다.

■ 소비자는 식품의 출처가 궁금하다

유기농 식품은 영양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만족감도 가져다준다. 유기농 방법으로 재배하는 땅은 전 세계의 약 1.5%를 차지하는데, 그중 50%가 오세아니아이며 아시아 9%다. 대만은 약 30년간 유기 농업을 추진해왔다. 초기 1,000헥타르에서 시작해 현재 10,000헥타르를 초과하였다. 유기농 채소의 경우 171헥타르에서 2,930헥타르까지 성장해 소비자들의 유기농에 대한 관심과 유기농업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다.

■ 유기 농업은 무엇인가? 어떻게 구별할까?

유기 농업은 생태 균형과 양분 순환을 일컫는데,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 등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과 「공존」하는 방식을 추구하는 농업 방식이다. 유기 농업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움직임이 커지면서 대만은 지난 2018년 「유기 농업 진흥법」을 발효했으며, 유기 농업 관련 규범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유기농 제품을 널리 보급하고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관련 인증 및 검증 규범을 정하고, 정부의 인증을 받은 관련 기관 혹은 학교는 생산자를 도와 지속적인 관리와 추적을 실시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에 유기농 제품 인증 마크를 부착하며, 제품에 인증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는 보다 쉽게 유기농 제품을 구별할 수 있다.

대만에서 판매되는 유기농 제품의 인증 마크는 대만 정부 유기농 마크(좌측)와 대만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 기관의 마크(우측)를 함께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만 정부에서 지정한 인증 기관은 현재 아래의 13개소이다.

< 대만 정부 유기농 인증 마크 >

재단법인국제미육자연생태기금회	대만성유기농업생산협회	위개국제검역과기고분유한공사	채원생태역증유한공사	자심유기역증고분유한공사
중화역증유한공사	조양과학기술대학교 농산가공역증센터	안심국제역증고분유한공사	재단법인화해유기농업기금회	국립중흥대학교
국립성공대학지연국제역증고분유한공사	환구국제역증고분유한공사	대만보도유기농업발전협회		

■ 대만 정부, 유기농업 장려 위해 연구센터 개소

지난 2020년 11월 5일 대만 화롄에서 최초로 유기 농업 연구 센터의 착공식이 열렸다. 화롄시는 대만의 유기농 농업 면적의 20%인 약 2,000헥타르 규모를 차지한다. 「유기 농업 연구 센터」는 유기농업 생산 관련 연구와 더 많은 농민이 유기 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했으며, 2021년 11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대만은 동 연구센터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관련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농민들이 느끼는 위험 부담을 해소하길 기대한다. 한편 대만은 이르면 내년부터 학교 급식을 자국에서 생산된 식재료(유기농 쌀 및 채소, 과일)를 사용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 시사점

전 세계가 유기농, 친환경 등 지속가능한 농업에 관심이 뜨겁다. 대만도 전세계적 유기농업 추세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기농 내수 시장을 강화할 계획이며, 추후 「유기 농업 연구 센터」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국내 유기 농업 및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 생산,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향후 대만 유기농 식품시장이 갈수록 보편화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1) 식력(foodnext) : https://www.foodnext.net/life/education/paper/5234540606

2) 연합보(Udn news) : https://udn.com/news/story/7328/4989470